

## 면담자의 인형사용과 질문유형이 5세 유아의 진술에 미치는 영향

Anatomically-Neutral Dolls and Interviewing Techniques :  
Effects on the Memory and Suggestibility of 5-Year-Old Eyewitnesses

송 수 진\*

Song, Su Jin

이 재 연\*\*

Lee, Jae Yoen

### Abstract

This investigation compared the eyewitness accounts of 5-year-old children by verbal-only interviews and interviews using anatomically neutral dolls. The verbal interviews consisted of free recall, specific question, and leading questions. While the overall accuracy of the interviews increased with the introduction of dolls as memory aids, the efficacy of the dolls was not uniform across types of interviews. In free recall, the dolls were not effective in eliciting accurate accounts. The use of dolls also did not compromise the memory of children in free recall which recalled greater number of correct details with the memory aids than without, but it should be careful in free recall could be reported exactly correct in spite of little bit amounts. Responses to leading questions showed that the children were affected by suggestive misleading question and were susceptible to incorporation of that information into their memory.

**Key Words** : 아동증언(child eyewitness), 해부학적 중성인형(anatomically-neutral doll), 면담 기술(interviewing skills)

※ 접수 2002년 6월 30일, 채택 2002년 7월 22일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선임연구원, 아동복지학과 강사, E-mail : libra153@hanmail.net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1. 서론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는 아동학대나 방임, 이혼, 가정폭력, 유괴, 성폭력 등 형사나 민사 사건같은 범죄사건에 대해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도록 요구받는 아동 수가 증가되면서 증언자로서의 아동의 진술능력에 관한 일련의 연구로서 목격자로서 혹은 피해자로서 아동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한다. 특히 아동이 한 사건에 유력한 목격자나 증언자로서 연루되었거나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재판부는 아동진술의 가치에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는 아동이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아동의 연령과 인권을 존중하여 이에 부합한 처우를 받도록 해야하며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아동권리협약 제40조). 뿐만아니라 피해아동이 증언한 진술내용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 시기는 최초의 진술이다. 면담 초기에 최대한 신뢰롭고 정확한 진술을 이끌어 내는 효율적인 아동면담방안 결정이 아동증언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아동은 숙결처리되는 사건에 대한 압력과 법정상황이 유발하는 분위기로 인해 상처에 대한 고통을 재인식하게되 '2차적 피해' 받을 수 있어서이다(서보하, 1996).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살인방화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4세 유아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던 한 판례(1999년)는 아동의 증언력과 신빙성을 인정한 판결로 변호인은 검찰이 아동의 진술을 유도, 왜곡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유아의 증언력과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4세 유아는 16세 미만으로 법정에서 선서의 의무가 없고 위증죄처벌도 불가능한 선

서 무능력자로 분류됨(형사소송법 제159조)에도 불구하고 유아에게 범죄장면이나 학대 경험과 같이 일상생활과는 다른 경험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증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실제로 아동의 증언능력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동이 성인에 비해 진술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동도 성인처럼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다는 대립적인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로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아동증언에 관한 초기연구들은 아동의 증언능력과 증언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어졌다(박자경, 이승복 1999; Ceci & Bruck, 1993; Ceci, Ross, & Toglia, 1987; Cole & Loftus, 1987; Golob, 1997; Haugaard, 1990).

아동증언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아동에 대한 이해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동이 성인보다 진술능력이 부족하고, 성인보다 회상하는 분량이 적다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는 등 증언에 신빙성이 없게 만드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연령면에서 아동이 진술한 보고의 양이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충분한 진술이었는데, 보고는 정확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아동의 증언력과 신빙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유아일수록 성인의 질문유형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사건보고의 일관성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면(Cohen & Harnick, 1980; Fivush & Hamond, 1990; Loftus & Loftus, 1980), 긍정적인 입장은 아동도 성인처럼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회상해내는 아동의 능력에 발달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줌으로서 아동도 목격자, 증언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자신의 경험한 사건이나 목격한 사실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회상해 낼 수 있다함은 아동의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기억이나 사고 발달의 특성으로서 상징이나 가상놀이, 마술적 사고, 기억의 구성적 처리를 비롯하여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 언어적인 미성숙함에 대한 요소까지 포함한다 (Goodman, Sharma, Thomas & Considine 1995). 뿐만아니라 충분한 보고와 진술의 정확성을 얻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아동 스스로 면담자의 질문에 자신을 협조적이고 신뢰할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와 질문자의 바람대로 대답해주려는 취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Ervin-Tripp, 1978; Nelson & Gruendel, 1979; Read & Cherry, 1978; Romaine, 1984). 실제로 성인의 질문에 쉽게 동요되는 유아들은 반복적이거나 암시적인 질문에서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데 이는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성인의 반복적이거나 암시적인 질문에는 더 쉽게 동요되는 특성과 성인보다 인지적 능력도 뒤떨어지는 특성에서 기인한다(Golob, 1997; Goodman & Reed, 1986).

연령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지닌 유아의 기억 및 사고 특성을 보면, 5세 유아의 지각능력은 연령증가와 함께 아동의 재인과 회상능력이 발달해 기억전략이 증가한다. 정신적 표상으로서 스크립트(script)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거나 관찰한 일상적인 사건 혹은 친숙한 사건들을 기술하는 것으로 정보를 회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더 나

이가 들수록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기술하게 되기도 하고 기억이 왜곡되거나 나아지기도 한다(고홍화, 성옥련, 이현주, 최상진, 1998). 기억은 질문에서의 특정 언어나 어휘, 지난 일의 조각들을 이어 맞추는 과정에서 변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입력된 정보는 인지적·정서적 안정을 깨뜨릴 경우 기억이 왜곡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이 왜곡되는 오류가 생긴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기억의 정보처리 제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예측치 못한 일이 일상의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재인이나 회상을 통해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목격자의 지식, 태도, 편견 및 정서나 동기와 같은 다른 심리적 과정이 함께 작용해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박창호 외, 1996). 특히 학대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의 사건 목격 증언은 이러한 기억의 왜곡 특성 때문에 유아의 증언을 어느 정도나 신뢰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어떤 사건이나 범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흔히 증인의 증언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적 기억의 영역이 거론되고 있다. 증인이 사건의 여러 정황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사건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시간은 사건 이후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섬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기는 어렵다. 기억의 구성적 처리는 최초의 제시된 정보를 원형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정보를 추가해서 기억하는 것으로 일종의 재인 기억과제에 속한다(김정오, 1995).

그러므로 기억을 평가할 때는 Koriat와 Goldsmith(1994)가 제안한 세가지 차원을 검토해 본다(김정오, 1995, 재인용). 즉 기억속성으로서 정확성과 양, 그리고 보고의 선택사양으

로서 강제와 자유, 마지막으로 검사양식의 세 변수들이 기억평가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증언에서 아동의 기억평가는 기억보고의 양과 정확성, 자유회상이나 규제에 의한 회상으로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반응, 또한 검사양식으로서 인형의 선택유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기억평가의 측면에서 보고의 양과 정확성에 대해 Fivush(1993)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가 버린 사건을 아동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기억정보 조사방법은 흔히 사건 후 즉각적으로 주어진 면담이나 심리 치료 과정이나 부모와 같은 주변인들에게서 진술의 일부를 얻을 수 있다(Ceci & Bruck, 1993). 우연에 의해 보고되는 경우에도 진술에서 보고의 정확성과 보고의 양을 평가한다. 그리고 면담은 그 자체 특성 상 유아에게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조사과정에서 아이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유도질문이 나이 어린 아동의 기억을 변화시킨 것인지, 반복적이고 암시적인 질문에 더 쉽게 동요되는 특성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Golob, 1997; Haugaard, 1990; Scheibe, 1995). 뿐만아니라 면담자의 질문을 받은 아동은 스트레스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고 기억수행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오히려 각성되어 기억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 양립된 견해에 주목하여 면담자는 연령에 적합한 용어로 질문해 충분한 보고의 양과 정확한 보고를 이끌어야 한다(Christianson, 1992).

목격한 사실에 대한 기억을 혼동시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질문은 아동의 기억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실을 오염시키고 원래 상태까지 기억하기 어렵게 하거나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유아들

이 피암시성(suggestibility)이 내포된 유도질문에 유도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버리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은 특히 수사 및 재판절차가 속행되어야 하는 아동 성폭행이나 학대 사건과 같은 경우 사법당국이, 신속한 진행을 위해 면접 초기부터 사실을 확인하려는 반복적인 심문과 유도질문을 실시할 경우 원정보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유도질문이나 구체적인 단서가 제공되는 질문들이 유아들에게는 쉽게 영향을 받게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진술의 정확성을 저하시키게 될 수 있다(이재연, 정영숙, 1998).

아동의 증언력과 신빙성을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특성을 고려한 면접방법과의 관계로 다루어본다면, 이는 유아에게서 충분한 보고와 정확한 진술을 이끌 수 있는 유도나 암시가 아닌 다른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기울어진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진술은 우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면담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이상현, 1997).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사전식 어휘나 구문적인 형태의 질문은 아동들에게 언어적 혼란을 야기시켜 아동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동의 언어적 문제를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훈련이 된 면담자에 의해 아동 진술에 도움이 되는 질문 전략을 세워져야 한다. 질문유형으로써 면담자는 먼저 아동과 라포(rapport)를 형성한 다음 자유회상이나 구체적인 질문으로 물을 수 있다. 특히 개방형이나 구체적인 질문은 아동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일상생활이나 친구 생일처럼 특별했던 날에 대해 더 자세하게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먹었다는거구나, 어떤 것을 먹었었니', '케익먹고 놀았었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니'와 같이 아동의 기억을 회상시키는 질문을 할 수 있다(Pillemer & White,

1989). Goodman과 그의 동료들(1995)도 단서를 제시해 주는 구체적질문은 아동의 기억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회상하게 하는 필요요소로 보았다.

아동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면담자의 피암시적 질문이다. 성인과 유아를 비교 연구한 결과, 범죄사건을 증언하는 유아는 성인이나 나이든 아동보다 혼동을 일으키는 질문과 정보에 더 암시적이었다(Shuster, 1993). 그리고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의 증언에서 모순을 빚는 이유도 변호사의 질문 때문에 비일관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ichardson, 1993). 아동들 대다수가 피암시성이 매우 강하고 교묘하게 잘 속고 인지적인 정교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배심원의 상당수가 아동증언을 신뢰하고 싶어하지 않음을 발견한 Boyette(1992)는 이러한 문화적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인상이나 사회적 판단에 강한 영향력을 끼쳐 아동증언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면담자의 질문에 내포된 피암시성에 가장 영향을 받는 요소가 연령으로 특히 유아의 피암시성의 위기에 놓일 때 취약하며 부정확한 기억을 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Demmie, 1998). 아동자신이 목격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유도질문 또는 잘못된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원래의 기억을 손상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이재연(1996)의 연구에서는 기억손상가설로 설명했으며(Loftus & Loftus, 1980, 재인용), Hardie(1991)는 ‘보고하는 중에 일으키는 손상’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피암시성이 내포된 질문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논의하게 되면서 아동은 성인보다 증언능력이 부족하고 더더욱 증언을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동 스스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자유롭게 제한

받지 않으면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즉 질문에 피암시성을 배제시켜 자유회상 질문, 구체적질문과 같은 질문체계로서 아동 진술에게 접근하는 것이다(Goodman, Sharma, Thomas, & Considine, 1995; Samra & Yuille, 1996). Patel(1997)의 4세-5세 유아들에게 소아과 진료를 받은 후 자신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보고하는 아동의 능력을 자유회상, 개방형질문, 구체적질문, 유도질문 순서로 질문으로 측정한 실험결과, 유아들은 자세히 묘사하고 정확히 회상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Quas(1998)의 실험에서도 자유회상, 개방형질문, 구체적질문, 유도질문으로 구성된 면접에서 5세 유아가 자유회상에서 정확한 정보를 거의 다 보고했고, 언어기술이 빈약한 아이는 구체적질문에서 정확한 반응을 보였으며 질문에 오류를 범하는 아동은 대개 암시적인 질문의 경우에서였다. 그러므로 자유회상 뒤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누가 거기에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구체적질문은 자유로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비암시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 개방형이나 구체적질문들을 통한 기억회상의 정확성은 성인과 비교해볼 때 아동이 보고하는 양이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정확했다. 또 아동들이 암시적이고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들을 사실인 것처럼 보고하려들지도 않았다(Slobogin, 1993). 따라서 유도질문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 주어져 피암시성에 취약한 아동의 능력이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예, 아니오’와 같은 대답만을 하게 하는 질문은 면담의 종결부에 놓아야 하며 아동의 진술과는 아무관계 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어야 한다(Samra & Yuille, 1996).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재연과 정영숙의 연구(1998)에서도 구체적인 질문이나 지시적인 질

문을 할 때 명확한 답을 얻을 수는 있으나 이런 질문 형태에는 부정확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도질문의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Dent & Stephenson, 1979; Saywitz & Goodman, 1991,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피암시성을 배제한 자유회상과 구체적질문, 마지막에 암시적인 유도질문이 주어질 때의 아동진술에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면접방식으로서 질문유형에 이어 일종의 검사양식으로서 인형이나 소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아동이 피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할 때이다(Ceci, Ross, & Togliola, 1987; Cohen & Harnick, 1980; Samra, 1996; Shields, 1994). 즉 심적 부담을 느끼는 피해아동이 더 이상의 진술과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소도구나 다양한 지지적 소품을 주게된다. 그러나 성인이나 나이든 아동보다는 유도와 암시에 더 취약한 유아들이 시각적인 단서를 제시받아 진술한 보고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쉽지는 않다(Ceci & Bruck, 1993). 최근 보고된 아동 성학대 발병률은 여전히 계속 증가추세인데 반해 상해가 보고된 사례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America Humane Association, 1988; De Jong, Hervada, & Emmett, 1983) 이는 의료적 증거만으로 사건의 전체적 상황과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으며, 아동이 성행위를 언어로 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머뭇거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아동의 보고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체의 생식기가 표현된 해부학적 인형(Anatomically detailed doll)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Finkelhor & Hotaling, 1984; Lamb, 1994). 그러나 인체의 생식기가 표현된 해부학

적 인형이 정확한 보고를 지지해주기 위해 고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형의 사용으로 성적환상을 자극하며 암시성을 높이고, 거짓학대보고를 할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Gabriel, 1985; Yates & Terr, 1988). 즉, 인체의 생식기가 표현된 해부학적 인형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아동의 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반박으로서 인형에 묘사된 생식기와 같은 신체부분들이 성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성적 환상을 부추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부학적 인형의 피암시성은 시각적으로 이미 언어적 질문의 수준을 넘는 암시를 내포하며, 장난감으로서는 이 인형이 보급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운 놀이가 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이재연, 1998; Boat & Everson, 1988; Ceci, Ross, & Togliola, 1987; Cohen & Harnick, 1980; Goodman, Aman, & Hrischman, 1987). 더구나 학대 받은 아동의 경우 인형과 상호 작용하기를 꺼리며 혼란을 보이기도 했다(Jampole & Weber, 1987).

따라서 해부인형이 지나치게 암시적이며 잘못된 보고를 이끌수도 있지만 법적 면접 도구로서 사용될 때 오히려 인형을 이용한 사건 재연이 아동의 기억 회상에 더 나은 교류를 갖게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Goodman & Aman, 1990). 즉, 다른 소도구들처럼 인형들이 아동의 보고를 도울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유아들의 미숙한 언어 발달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인지적인 기억력 과제들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Price & Goodman, 1990). 인형은 기억을 회상해내는 단서로써 유아의 진술이 충분히 보고되게 하는 보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외부적 지원단서는 부족한 아동의 내적능력을 재구성하고 연령차를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Fischer & Bullock, 1984; Perlmutter, 1984; Price & Goodman, 1990). 이와 같이 해부학적 인형에 대한 견해도 유아에게 암시적 질문의 기능과 성적 환상을 조장해 잘못된 해석을 이끈다는 잠재적 피암시성의 위험인식과 아동에게 더 나은 기억회상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결과들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Conte, Sorenson, Fogarty & Rosa, 1991). 이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인체의 생식기가 표현되지 않은 해부학적 중성인형(Anatomically neutral doll)사용에 대한 견해가 수용되고 있다(Samra & Yuille, 1996). Samra와 그녀의 동료(1996)는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기억 회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인체의 생식기가 표현되지 않은 해부학적 중성인형과 소품을 주었을 때 유아들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이는 Britton과 O'keefe(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유아나 언어적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지닌 아동과의 면접에서는 면접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림을 그리거나 인형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Samra & Yuille, 1996).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아동증언에 관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으나(박자경, 이승복, 1999; 이재연, 1996; 이재연, 1998; 이재연, 정영숙, 1998), 아직은 아동증언에 대한 소개나 질문유

형이 증언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국한되어 있었다. 더욱이 국내 관련 문헌에서 아동증언을 연령별 또는 성별 비교나 인형이나 소도구 사용과 관련된 실증적인 자료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질문의 유형을 자유회상, 구체적질문, 유도질문의 순서로 할 것과, 둘째 인체의 생식기가 표현되지 않은 중성인형을 사용하여 5세 유아를 중심으로 진술의 양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2. 연구문제

- 1) 인형 제시유무에 따라 아동이 진술한 보고의 양은 달라지는가?
  - (1) 면접 전체에 나타난 보고의 양은 어떠한가?
  - (2) 자유회상에서의 보고의 양은 어떠한가?
  - (3) 구체적질문에서의 보고의 양은 어떠한가?
- 2) 인형 제시유무에 따라 아동이 진술한 보고의 정확성은 달라지는가?
  - (1) 면접 전체에 나타난 보고의 정확성은 어떠한가?
  - (2) 자유회상에서의 정확성은 어떠한가?
  - (3) 구체적질문에서의 정확성은 어떠한가?
- 3) 인형 제시유무에 따라 유도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구립 어린이집의 5세 아동 40명이었다. 교사가 준 아동명부에 따라 2개 학급의 아동 전원 40명을 반에 상관없이 20명은 실험집단, 20명은 통제집단으로 임의배정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으로 나누어진 아동들을 실험과 면접에서 다시 무선으로 배치했다. 실험과 면접 당일 결석한 아동 4명, 참여를 거부한 아동 2명의 응답을 제외시킴으로써 실험집단 17명, 통제집단 17명으로 총 34명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전체의 평균연령은 5세 2개월이었으며, 각 각의 실험집단, 통제집단 아동의 평균 연령은 모두 5세 2개월이었다. 성별로 보면 총 남아 18명, 여아 16명이었는데, 실험집단은 남아 8명, 여아 9명이 통제집단은 남아 10명, 여아 7명이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자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측정도구로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자유회상, 구체적질문, 유도질문에 대한 면접 기록양식을 작성하였다. 면접문항에는 경험자극에 대한 응답의 측정범주와 항목을 행동, 사람, 신체부위로 나누어 명시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인형없이 구두면접으로만 자유회상시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 구체적질문을 통한 회상으로 답하게 했다. 실험집단에서는 면접 시작과 함께 면접도구로써 인체에 성기가 표현되어있지 않은 각각의 남자 인형, 여자 인형, 성인 여자 인형으로 경험자극 처치시 있었던 일을 재연하게 하였다.

면접은 자유회상으로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 한 다음 구체적질문을 통한 회상으로 질문에 답하게 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모든 아동은 맨 마지막에 유도질문을 받았다. 유도질문은 두 집단 아동에게 동일하였고 경험자극과 관련없는 내용이 주어졌다.

면접용지의 각 문항은 행동, 사람, 신체부위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경험자극 전체를 모두 기억할 경우(76점)에서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경우(0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신체놀이와 옷갈아입기 경험자극은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 1-19는 신체놀이, 문항 20-24는 옷갈아입기이다. 신체놀이 문항 1-18까지는 경험자극을 모두 기억할 경우 3점을 얻으며, 전혀 기억하지 못할때는 0점이다. 문항19만은 총 4점을 얻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문항 7의 '선생님이 내 머리를 만졌어요'에서 아동이 '선생님이 내 머리를 만졌어요'라고 말하면 3점, 문항에서 행위나 사람, 신체부위 언급이 결여된 것은 점수화하지 않는다. 즉 '만졌어요'라고만 말하면 1점이다. 면접결과는 면접자가 직접 자유회상질문 면접 기록용지, 구체적질문 및 면접 기록용지, 유도질문 및 면접 기록용지에 각각 기록하였다. 점수채점을 위한 각 측정범주와 세부항목에 대한 정의를 면접자에게 부록으로 제시, 훈련한 후 동일인이 실험처치 및 면접을 실시하게 하였다.

### 3. 연구절차

####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두 집단 사후검사 실험설계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선정된 표집대상 아동



전체 34명에게 동일한 경험자극처치(X)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후검사시 실험집단인 17명의 유아에게만 인형을 제시해주는 면담처치조건에 참여하게 하고, 통제집단인 17명의 유아에게는 실험집단에게 실시한 인형을 제시해주지 않았다. 면담은 한 번 질문에 옹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질문을 반복하는데서 오는 효과를 주지 않기 위해 사후검사 실험설계를 사용하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검사를 생략했으며 34명의 유아가 무선할당을 통해 두 집단으로 나뉘고 또 각 집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검사결과 나타나는 집단간 차이는 면접처치조건 때문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1) 아동에게 제시한 경험자극처치

모든 아동이 기억해야 할 경험자극은 신체놀이와 옷갈아입기놀이를 포함한 총 76가지로 구성되었고, 약 10분간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목적이 아동들이 자신의 몸과 관련된 행위를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해 얼마나 기억하며 그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험자극은 면접조건에서 아동의 기억회상을 채점하는 조건이 된다.

① 신체 놀이

목적 : 아동의 신체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 교사가 먼저 행동하고 그 행동을 아동이 따라하게 하는 놀이를 실시함으로써 아동이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경험케 한다.

② 옷갈아 입기

목적 : 실험을 위해 준비해 둔 옷과 모자를 아동이 입고 벗음으로 그 행위에서 일어난 활동들을 경험하게 한다.

아동에게 제시한 경험자극은 신체놀이에서 「행위」는 「만졌어요」가 16번, 「(엉덩이를) 툭툭

쳤어요」가 2번, 「(혀를) 내밀었어요」 1번 합으로 총 19가지였다. 「사람」은 선생님이나 아동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10번, 아동이 10번 상호작용해 총 20가지였다. 「신체부위」는 「코」, 「머리」, 「발」, 「무릎」이 각각 4번씩 16번, 「엉덩이」는 2번, 「혀」가 1번으로 총 19가지였다. 따라서 신체놀이에서 아동이 기억해야 할 자극은 총 58가지였다. 옷갈아입기에서 「행위」는 「옷이나 모자를 입거나 쓰고」, 「벗는」 것으로 4번, 「사진찍기」 1번으로 총 5가지였다. 「사람」은 선생님이 5번, 아동이 3번으로 총 8가지였다. 「물건」으로는 「옷과 모자」가 2번씩, 「카메라」가 1번으로 총 5가지였다. 따라서 옷갈아입기에서 기억해야 할 자극은 총 18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해야 할 자극과 무관한 내용을 유도질문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방안에 기타는 없었는데 면접자는 아동에게 「그 방에 기타가 있었지?」, 「그 선생님이 기타를 치셨지?」와 같은 것이다.

(2) 실험자, 면접자 선정 및 훈련

실험자 및 면접자는 실험자, 면접자 변인을 가능한 통제하기 위한 사전합의 과정을 거쳐 실험지침서 대본에 따라 경험자극처치실험에서 했던 행위들에 대한 설명, 행동재연하고 동일한 채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본 실험 및 면접

실험실은 조용하고 독립적인 장소로 마련되었고, 아동의 주의를 산만해지지 않도록 실험실 내부의 다른 요소들은 보이지 않게 가렸다. 실험실에서 실험자는 바닥에 깔개를 깔고 아동을 앉힌 다음, 신체놀이에 대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고 연습한 경험자극을 처치하였으며, 신체놀이가 끝난 후에 옷갈아입기 놀이를 하게

하였다. 실험처치시간은 아동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약 15~20분이 소요되었다. 실험처치를 받은 아동과의 면담은 처치받은 후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실시하였으며 실험 분위기와 실험자의 존재에 친숙하게 하기 위하여 라포를 형성한 후 아동과의 일대 일 면접으로 면담자는 아동과 마주보지 않고 직각으로 앉게 하였다. 실험때와 동일하게 대기실과 면접실에서 아동과 라포를 형성한 후 자유회상, 구체적질문, 유도질문을 하고 아동에게 대답하게 하였다. 2명의 면담자가 34명의 아동을 면접하는데 한 아동 당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 4. 자료분석

인형제시유무에 따른 질문전체, 자유회상 및 구체적질문, 유도질문에서 기억회상의 양과 정확성은 SPSSWIN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험자극처치 전체에서 응답한 수의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 및 인형제시에 따른 차이 분석을 위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아동이 진술하는 보고의 양

면접 전체에서 보고된 양을 보면 인형이 제시된 집단은 76.8%, 인형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은 42.6%로 나타났으며, 인형제시조건에 따른 주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1,32) = 12.00, p < .001$ ), 인형을 가지고 면접에 응한 유아들이 인형없이 구두면접에만 응한 아동보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회상양이 더 많았다. 자유회상에서 보고된 양은 인형이 제시된 집단이 24.6%, 인형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이 10.1%로, 인형제시조건의 주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F(1,32) = 6.28, p < .01$ ), 인형을 가지고 자유회상질문에 응한 유아들이 인형없이 구두면접에만 응한 유아보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회상양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질문에서 보고된 양은 인형이 제시된 집단이 51.9%, 인형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이 33.6%로 인형제시조건의 주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F(1,32) = 7.89, p < .001$ ). 즉, 인형을 가지고 구체적질문에 응한 유아들이 인형이 없이 구두면접에만 응한 유아보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회상양이 더 많았다.

〈표 1〉 자유회상과 구체적질문 전체의 인형제시유무에 따른 보고의 양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9903.098	1	9903.098	12.006***
집단내	26395.429	32	824.857	
전체	36298.527	33		

\*\*\* $p < .001$

〈표 2〉 자유회상에서 인형제시유무에 따른 보고의 양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1780.644	1	1780.644	6.284**
집단내	9066.930	32	283.342	
전체	10847.574	33		

\*\* $p < .01$

〈표 3〉 구체적질문에서 인형제시유무에 따른 보고의 양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2836.076	1	2836.076	7.894***
집단내	11496.456	32	359.264	
전 체	14332.532	33		

\*\*\*p<.001

## 2. 아동이 진술한 보고의 정확성

면접 전체에서 보고된 내용의 정확성을 보면, 인형이 제시된 집단이 98.1%, 인형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이 93.5%이었고, 인형제시조건의 주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32)=2.85, p<.05$ ). 즉, 인형을 가지고 면접에 응한 유아들이 인형없이 면접에 응한 유아보다 경험에 대한 기억회상 보고내용이 정확했다. 자유회상의 경우, 인형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이 97.8%, 인형이 제시된 집단이 91.5%이었으며, 인형이 제시되지 않을 때 인형제시조건의 주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F(1,32)=3.35, p<.01$ ), 인형이 없이 자유회상에 보고되는 내용이 정확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질문에 아동이 진술한 보고의 정확성은 인형이 제시된 집단이 99.2%, 인형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이 94.2%이었으며 인형제시조건의 주효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인형을 가지고 면접

〈표 4〉 자유회상과 구체적질문 전체의 인형제시유무에 따른 보고의 정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173.543	1	173.543	2.852*
집단내	1947.423	32	60.857	
전 체	2120.966	33		

\*p<.05

에 응한 유아나 인형이 없이 구두면접에 응한 유아 모두 구체적질문에서는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인형제시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자유회상에서 인형제시유무에 따른 보고의 정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336.498	1	336.498	3.359**
집단내	3205.783	32	100.181	
전 체	3542.280	33		

\*\*p<.01

〈표 6〉 구체적질문에서 인형제시유무에 따른 보고의 정확성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215.453	1	215.453	2.615 (n.s)
집단내	2636.297	32	82.384	
전 체	2851.749	33		

n.s=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 (No main effect)

## 3. 유도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

유도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아동의 반응은 인형이 제시된 집단에서는 62.4%, 인형이 제시되지 않은 집단에서는 64.7%이었으며 인형제시조건의 주효과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인형을 제시받았거나 받지 않은 아동 모두 유도 질문에 인형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도질문에 아동의 60%이상 '예'라고 대답한 점은 유아가 유도질문을 잘 거부하지 못하며, 성인의 유도와 암시에 쉽게 넘어가는 취약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 IV. 요약 및 논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고를 수용하고 아동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들이 취약성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억'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손상과 후유증을 초래하는 학대는 그 발생경로가 일상생활속에서 장기간 계속되어오는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성학대와 같은 경우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학대의 결과로 인해 아동의 진술이 증언자료로 가장 큰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과정으로 이행되기 시작할 때에는 아무리 학대의 수준이 낮았다하더라도 아동은 정확히 상황을 기억해내야만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학대는 기억이 분명하지만 명확하게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수준일 경우나 일상생활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아동의 기억을 왜곡없이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험연구의 경험처치자극의 내용이 다소 평이한 경향이 있음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실험결과, 기억보고의 양은 인형이 없는 집단보다 인형을 받은 집단이 전체적으로 기억회상의 양이 높았으며 자유회상질문이나 구체적질문에서 역시 인형이 제시되었을 때가 제시되지 않을 때보다 기억회상의 양도 많아 인형제시는 아동의 기억회상을 촉진하여 보고량이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동이 진술한 기억 보고의 내용의 정확성은 자유회상에서는 인형이 제시않을 때 회상의 양은 적으나 내용이 정확했으며, 구체적질문은 인형여부에 따라 정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제로 인형을 가지고 면접에 응하는 아

동은 인형을 받지 않은 집단의 아동보다 면접 시 보고하는 양이 많지만 그 가운데는 정확한 보고가 되는 내용과 관련 없는 이야기가 인형이 없는 집단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험에서 하지 않았던 행위나 자극이 채점하지 않았던 예외의 반응들은 인형을 받은 집단의 부정확성을 높였던 요인으로 아동이 인형으로 인해 기억이 촉진되면서 상상 활동이나 놀이 활동이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유회상과 구체적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암시적인 질문보다는 자유회상에서 정확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는 주장과, 구체적질문이 자유회상에 빠진 중요한 사항을 비암시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Cohen & Harnick, 1980; Ceci, Ross, & Togila, 1987; Samra & Yuille, 1996)는 주장과도 일치되는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 보고의 정확성이 인형제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형이 장난감이나 대상물체에 대해 아동이 상상이나 환상적인 사고를 하듯이 아동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술하게 됨으로 인해 면담자가 바라는 사실과는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 사실 이러한 점은 아동의 표현기술의 미숙성을 보충하는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 논의되어왔고(Ceci, Ross, & Toglia, 1987; Cohen & Harnick, 1980; Fischer, 1980; Fischer & Bullock, 1984), 인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형은 아동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재연해보는데 기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일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유도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아동이 인형을 제시받거나

받지 않거나 차이가 없었지만 확대와 관련된 질문에는 강하게 거부하는 경향과 성인이 묻는 질문의 유형이나 단어에 따라 질문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반응해 주기 쉬운 경향이 유도질문에서 보여졌다. Cherry, 1978; Romaine, 1984). 이러한 유도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유도질문을 강하게 거부하지도 못하는 피암시성에 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Hardie(1991)와 Shuster(1993)의 주장과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유도질문이 보고를 충분히 이끌어 내거나 정확한 보고가 아닐 수 있으므로(이재연과 정영숙, 1998)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므로 기억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동에게 인형을 사용하는 것과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을 재구성시키면서 일어

나는 기억의 왜곡과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질문방법으로서 자유회상, 구체적질문, 그리고 유도질문을 사용할 때는 아동의 보고에 대해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의 반응은 자유회상 질문일 때 비록 아동이 말문을 열지 않아 아동의 기억회상이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보고의 양도 적지만 인형이 없이도 정확한 보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동에게 인형을 주지 않는 구두면접은 질문의 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 아동보고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유회상 보다는 구체적질문에서 아동의 진술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고, 인형제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는 있으나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해석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 참 고 문 헌

- 고홍화, 성옥련, 이현주, 최상진 (1998). 심리학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정오(1995). 기억실험 : 과제유형 및 과제분석. 정신건강연구(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4, 104-115.
- 박자경, 이승복(1999). 유도질문이 다른 진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2(1), 54-71.
- 박창호 외 14인(1996). 현대심리학 입문. 서울 : 정민사.
- 서보학(1996).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7, 4, 28, 169-201.
- 송수진(1999). 면담자의 인형사용과 질문유형이 5세 유아의 진술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현(1997). 범죄수사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형사정책연구소식, 18, 2, 30, 5-34.
- 이재연(1996). 아동증언에 관한 문제와 연구방향. 아동연구(숙명여대 아동연구센터), 11, 1-18.
- 이재연(1998). 아동 성학대 확인을 위한 면담방법과 놀잇감의 활용 : 아동상담과 심리치료의 세계(숙명여대 사회·교육과학연구소 아동연구센터), 23-35.
- 이재연, 정영숙(1998). 아동증언의 신뢰성 판단에 대한 발달적 접근. 아동권리연구, 2(2), 75-90.
- America Humane Association.(1988). *Highlights of official child neglect and abuse reporting, 1986*. Denver, CO : Author.
- Boat, B., & Everson, M.(1988). The use of anatomical dolls among professionals in sexual abuse evaluations. *Child Abuse & Neglect, 12*, 171-186.
- Boyette, S. L.(1992). *From the mouths of babes : An examination of case characteristics which predict adult perceptions of children's credibility*.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San Diego.
- Britton, H. L., & O'Keefe, M. A.(1991). Use of the anatomical dolls in the sexual abuse interview.

- Child Abuse & Neglect*, 15(4), 567-573.
- Ceci, S. J., & Bruck, M.(1993).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403-439.
- Ceci, S. J., Leichtman, M., & White, T.(in press). Interviewing preschoolers : Remembrance of things planted. In D. P. Peters (Ed.), *The child witness in context : Cognitive, social, and legal perspectives*. The Netherlands : Kluwer.
- Ceci, S. J., Ross, D., & Toglia, M.(1987). Age differences in suggestibility : Psychological implic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General*, 117, 38-49.
- Christianson, S.(1992). Emotional stress and eyewitness memory : A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2, 284-309.
- Cohen, R. L.,& Harnick, M. A.(1980). The susceptibility of child witnesses to suggestion. *Law and Human Behavior*, 4, 201-210.
- Cole, C. B., & Loftus, E. F.(1987). The memory of children. In S. J. Ceci, M. P. Toglia, & D. F. Ross (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 (pp. 178-208). New York : Springer-Verlag.
- Conte, J. R., Sorenson, E., Fogarty, L., & Rosa, J. D. (1991). Evaluating Children's reports of sexual abuse : Results from a survey of professionals.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 428-432.
- DeJong, A., Hervada, A., & Emmett, G.(1983). Epidemiological variations in childhood sexu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7, 155-162.
- Demmie, H. M.(1998). *Suggestibility of children's recollections : A meta-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Miami Inst. of psychology of the caribbean center for advanced studies.
- Ervin-Tripp, S.(1978). Wait for me, Roller-Skate. In S. Ervin-Tripp & C. Mitchell-Kernan (Eds.), *Child discourse* (pp. 165-188).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Finkelhor, D., & Hotaling, G. T. (1984). Sexual Abuse in the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 An appraisal. *Child Abuse & Neglect*, 8, 23-33.
- Fischer, K. W.(1980). A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ical Review*, 87, 477-531.
- Fischer, K. W., & Bullock, D.(1984). Cognitive development in school-age children : Conclusions and new directions. In W. A. Collins (Ed.), *Development during middle childhood : The years from 6 to 12* (pp. 70-146).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ress.
- Fivush, R. & Hamond, N. R.(1990). Autobiographical memory across the preschool years : Toward reconceptualizing childhood amnesia. In R. Fivush & J. H. Hudson(Eds.), *Knowing an remembering in young children* (pp. 223-248).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vush, R. (199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autobiographical recall. In G. S. Goodman & B. Bottoms (Eds.), *Child victims and child witnesses : Understanding and improving testimony* (pp. 1-24). New York : Guilford Press.
- Gabriel, R. M.(1985). Anatomically correct dolls in the diagnosis of sexual abuse of children. *Journal of the Melanie Klein Society*, 3, 40-51.
- Golob, J. S.(1997). *The forgotten victim : The child witness to domestic violence. An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preschool-aged child*. Doctoral Dissertation, Widener University, Institute for graduate clinical psychology.
- Goodman, G. S., & Helgeson, V. S.(1985). Child sexual assault : Children's memory and the law.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40, 181.
- Goodman, G. S., & Reed, R. S.(1986). Age differences in eyewitness testimony. *Law and Human Behavior*, 10(4), 317-332.
- Goodman, G. S., & Aman, C.(1990). Children's use of anatomically detailed dolls to recount and event.

- Child Development*, 61, 1859-1871.
- Goodman, G. S., Aman, C., & Hrischman, J.(1987). Child sexual abuse and physical abuse : Children's testimony. In S. Ceci, M. Toglia, & D. Ross (Eds.), *Children's eyewitness memory* (pp. 1-23). New York : Springer-Verlag.
- Goodman, G. S., Batterman-Faunce, J. M., & Kenney, R.(1992). Optimizing children's testimony : Research and social policy issues concerning allegations of child sexual abuse. In D. Cicchetti & S. Toth (Eds.), *Child Abuse,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Norwood, NJ : Ablex.
- Goodman, G. S., Sharma, A., Thomas, S. F., & Considine, M. G.(1995). Mother knows Best : Effects of relationship status and interview bias on children's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 195-228.
- Hardie, S. M.(1991). *Reducing suggestibility in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 A training program to improve children's competence to resist misleading questions and aid retrieva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Haugaard, J. J.(1990). *Children's Definitions of the truth and their competency as witnesses in legal proceeding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Jampole, L., & Weber, M. K.(1987). An assessment of the behavior of sexually abused and nonsexually abused children with anatomically correct dolls. *Child abuse & Neglect*, 11, 187-194.
- Lamb, M. E.(1994). The investigation of child sexual abuse : An interdisciplinary consensus statement. *Child abuse & Neglect*, 18(12), 1021-1028.
- Loftus, E. F., & Loftus, G. R.(1980). On the permanence of stored information in the human brain, *American Psychologist*, 35, 409-420.
- Nelson, K., & Gruendel, J.(1979). At morning it's lunchtime : A scriptural view of children's dialogues. *Discourse Processes*, 2, 73-94.
- Patel, A. C.(1997). *Implications for eyewitness testimony*.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Berkeley/Alameda.
- Perlmutter, M.(1984).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early human memory paradigms, processes, and performance. In R. Kail & N. E. Spear (Eds.),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memory*(pp. 253-286). Hillsdale, NJ : Erlbaum.
- Pillemer, D. B., & White, S. H.(1989). Childhood events recalled by children and adults. In H. W. Reese(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21(pp. 297-340).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Price, D. W. W., & Goodman, G. S. (1990). Visiting the wizard : Children's memory for a recurring event. *Child Development*, 61, 664-680.
- Quas, J. A.(1998). *Children's memory of experienced and nonexperienced events across repeated interview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Read, B., & Cherry, L.(1978). Preschool children's productions of directive forms. *Discourse Processes*, 1, 233-245.
- Richardson, G. C.(1993). *The child witness : A Linguistic analysis of child sexual abuse testimony*.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Romaine, S.(1984). *The languag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ambridge, MA : Basil Blackwell.
- Samra, J., & Yuille, J. C.(1996). Anatomically-neutral dolls : Their effects on the memory and suggestibility of 4-to-6-old eyewitnesses. *Child Abuse & Neglect*, 20(12), 1261-1271.
- Scheibe, R. O.(1995). *Factors affecting the contents of children's statements in sexual abuse case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Utah.
- Shields, J. I.(199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ccuracy enhancing techniques for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Doctoral Di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San Diego.

Shuster, L. A.(1993). *Effects of warnings on the suggestibility of preschool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Hofstra University.

Slobogin, P.(1993). *Interviewing techniques and the*

*suggestibility of child witnesses*.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Yates, A., & Terr, L.(1988). Anatomically correct dolls : Should they be used as a basis for expert testimon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 254-257.